

오피니언

光日春秋

정중섭



여행의 자유화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나 산업이 발전한 나라, 자연환경이 빼어난 나라,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 등을, 국민들의 이러한 여행과 교섭의 경험은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가져왔다.

어떤 곳은 외국의 도시를 흉내 내어 집들의 색깔을 바꾸는 곳도 있고, 외국 유명 건축가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는 곳도 있으며, 외국 축제를 본 따서 축제로 특화하기도 한다.

어는 것이나 자기 지방을 잘 되게 하려는 생각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을 다시 찾고 그 도시를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어지간히

둘러 본 후에 나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의 변화는 남의 나라들을 들여다 보던 것에서 시선이 안으로 돌아와 내가 사는 이 땅을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자세이다. 다른 나라의 것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내가 사는 우리 조국에 더 애착이 가는 모

국토를 박물관으로 가꾸자

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 떠오른 한 생각이 전 국토를 박물관으로 가꾸는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섬을 보고 제주를 가면 사람이면 해안선이 그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섬은 흔치 않다는 것을 발견 할 것이다. 화산섬 겹겹의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삶의 모습들과 이야기, 높은 한라산과 안전한 기생화산들, 그들이 만들어낸 숲과 길들이 모두 박물관 아닌 것이 없다. 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항구들과 그리고 다도해에 떠 있는 섬들, 이를 생태친화적으로 가꾸고 해상

교통로를 개발하면 남해안은 참으로 멋진 물의 나라다. 북포, 신안, 영암, 강진, 남해, 통영, 거제, 부산 등으로 이어진 도시 들에는 문화와 예술과 역사들이 층층으로 쌓여 있다. 경주는 인류 역사에서 흔치 않은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도시이다. 고대 문명교류의 중심이었던 제국 신라의 찬란한 모습은 아직도 땅속에 늘려 있다. 신 경주를 만들어 현 주민을 이주시키고 한반도 내 천년 고도의 도시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한 국가단위를 넘어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적인 프로젝트다.

양동마을은 민속마을로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가 인정받은 자랑거리이고, 안동은 조선의 유교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부여와 공주는 오랜 고도인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증명하는 현장이다. 일본 역사의 원류지로서 재조명하고 가꿀 곳이다. 익산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역사도시다. 산성위에서 내려다보면, 익산에 펼쳐진 들과 산과 마을과 역사유적은 그 전체가 온통 자연 박물관이다. 남강은 그 강 전체가 역사요 문화요, 문학이다. 낙동강도 그러하거니와 금강도

마찬가지다. 강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전국에 늘려 있는 사찰들과 종탁들, 그리고 서원과 정자들은 한반도 전역에 박혀 있는 반짝이는 보석들이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들어선 곳을 보면, 우리의 풍수사상에 따라 그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생태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건축물만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근경과 원경의 복합경관 전체가 하나의 예술이다. 정자를 다시 손질하고 종탁들을 모두 복원하여 단장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오늘날의 문화유산은 원형보존으로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으나, 문화유산 속에서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활용보존도 문화유산권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서원과 정자들을 복원하여 지방의 문화·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종탁들을 활용보존함으로써 역사의 향기 속에 우리 삶을 다시 쉼없는 일을 한다면 삶의 품격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국가브랜드라고 하여 당장 팔아먹을 것을 찾는데 급급하거나 눈앞의 돈만 보고 축제를 벌일 것이 아니라, 과거와 연결된 현재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 낼 수 있게 국토를 박물관으로 가꾸는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서울대 법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북구 건강복지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광주시 북구청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다. 북구청이 추진중인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구 건강복지타운은 특별교부세, 시·구비 등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산동 무등도서관 뒤편 사유지 공터에 내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운이 들어설 부지는 근린공원지역이다. 따라서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 수영장 등 거의 모든 시설은 지하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강 복지시설이 통풍·채광 등에 문제가 있는 지하에 건립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생똥맛이다. 더구나 북구청은 건강복지타운 부지의 4배나 되는 구 소유의 땅이 있음에도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 하면서까지 사유지를 굳이 했다.

뿐만 아니라, 북구청은 지난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업지시서에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 지시서에 따라 설계한 업체는 탈락시키고, 지하로만 설계한 업체를 선정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 하면서도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구청의 건강복지타운 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어떻게 이런 몰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황당하다.

북구 건강복지타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성사된 사업이다. 이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따오면서 자기 지역구에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의원 주장에 따라 다른 지역구 주민은 북구주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의원이나 의원 말이면 똥 오줌 못 기리는 북구청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다.

북구 건강복지타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성사된 사업이다. 이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따오면서 자기 지역구에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의원 주장에 따라 다른 지역구 주민은 북구주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의원이나 의원 말이면 똥 오줌 못 기리는 북구청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다.

개성공단 최악 상황만은 피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자 간의 만남이었던 21일의 '개성접촉'이 별 성과없이 22분 만에 끝났다. 이날 남북은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새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임금·토지사용 등 남북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로 대해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고했다. 자기들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핵 사태 등 온갖 악재 속에서도 양측을 잇는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셈이다.

우리는 이번 접촉이 지난달 3월 이후 재개된 첫 만남인 만큼 후속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열매로, 2월 말 현재 남북기업 101개가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며 북측 근로자 3만8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는 101개 입주 기업과 그 하청업체들의 명운 뿐 아니라 3만8천여 근로자를 포함한 10만여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시적인 감정에 차우쳐 결정할 사안이나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개성공단문제'를 풀려면 북측의 신뢰가 필요하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신변 안전과 계약의 신성성이 선행돼야 한다. 신변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교류나 협력도 불가능하다. 토지사용료나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측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조치는 곤란하다. 철저한 사전조율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책 혼선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다.

無 等 鼓

삼성그룹이 었고제 오늘의 사자성어(四字成語)로 '해연경장(解弦更張)'을 선정했다.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댄다'는 뜻이다.

이 문구는 본래 중국 한(漢)나라 때 학자인 동중서(董仲舒)가 황제인 무제(武帝)에게 진언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심해지면 반드시 줄을 풀어서 고쳐 매어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竊譬之琴瑟不調, 甚者必解而更張之, 乃可數也). 줄을 바꿔야 하는데도 바꾸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가라 하더라도 조화로울 수 없을 것이고, 개혁해야 하는데도 실행하지 않으면 현인이라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 회장의 퇴진 후 경영쇄신 1년을 맞는 삼성 경영진의 분위기가 었 보인다. 조직 안락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내 글자로 압축해 '호수에 돌을 던지듯' 간명하게 보여줬다. 1분기 실적이 좋다고 맘 놓지 말자는 다짐이다.

다른 기업들도 사자 성어를 이용한 경영이 활발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임직원이나 투자자 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짧으면서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연호 남용 LG전자 부회장이 '중석물축' (中石物簇)이라고 쓴 신년 카드를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라는 당부다.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여러 위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에서 '마부작침' (磨斧作針)을 내세웠다.

각종 경제지표가 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몰아갔다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통계 착시가

‘四字 經義’



해연경장

각종 경제지표가 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몰아갔다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통계 착시가

기 고

임희경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량(50.7%)이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58.7%)는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인들에게 주택연금제도는 잘 활용하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노후 생활비를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연금의 진입장벽을 낮춘 대신 가입 혜택이 커진 것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부터는 그동안 주택연금 이용시 예외사항이었던 '가입연령'이 전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연세등이 목돈으로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현재 대출한도의 30%에서 50%로 크게 늘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웠던 고령자들의 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고령자에겐 주택연금이 효자

주택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주거문제 걱정 없이 일정한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주택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득이 낮고 매달 어려운 단독주택 한 채 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의 노인들인데도 정보부족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노인은 약 42만 명이며 고령화율은 12.9%로 전국 9.1%에 비해 훨씬 높다. 반면 주택의 자가 소유비율은 수도권 등에 비해 높아 광주가 74%, 전남이 91%로 노후준비가 부동산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소유 주택은 대부분 구도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이런 단독주택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매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좋은 이유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수도권이나 지방에 구분없이 3.5%로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도 크게 늘어나 집값 3억 원 이하, 연소득 1천2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 가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평생 동안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 있다. 그러나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자식과 본인 체면이 뛰가 되느냐는 보수적 정서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상속 개념에서 벗어나 소유와 투기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인식 전환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시정, 구정 등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주택이 효자노릇을 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교수·이학박사>

자주 걸려오는 자녀들 전화, 부모에겐 ‘최고 효도’

나는 요즘 자녀들이 매일 전화를 해주어 너무 기쁘다. 이전에는 시외전화비가 비싸 할부모 전화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시외전화비도 대폭 내려 한 통화를 해도 불과 몇백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침이면 큰아들로부터, 저녁이면 작은아들이나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날마다 소식을 들을 수 있어 공금등도 사자하고 싶었다. 물론 자주 집에 찾아주면 더 좋겠지만 난민 일상생활이 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려면 비용이 많이

나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 소식 늘 듣고 자식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집 자식들은 일 내야 몇 분 전화가 대체로 오지 않는다는데 우리 자식들로부터는 매일 전화가 오니 반갑고 기쁘고 그지없다. 다른 집 자녀들도 부모에게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

<최진야·광주시 광안구 광산동>

의 료 칼럼

양은석



봄바람을 맞으며 아이들과 함께 꽃구경을 가고 싶지만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나들이하기가 썩 내키지 않다. 특히 봄바람과 함께 날려 오는 꽃가루와 황사는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까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아토피 피부염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피부장벽 이상 등 다양하고 잘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문명의 역습에 의한 '현대판 난치병'으로 불

또한, 가려움증은 밤에 심해지므로 손을 짧게 정돈해 자다가 무의식중에라도 긁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옷은 털옷이나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옷 대신에 면으로 만든 옷을 헐렁하게 입힌다. 집 안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침구나 장난감 등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피부 증상이 악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욕과 보습제의 사용이 중요하다. 평소에는 가법적 샤워 정도를 하는

현대판 난치병 '아토피'

리고 있다. 더욱이 그대로 방치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들로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꾸준한 치료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질환이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원칙은 먼저 악화한 상태를 치료하는 급성 치료와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만성 치료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발시키는 원인이나 악화 요인을 피해주는 회피요법, 피부를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목욕과 보습제의 사용을 통한 피부 관리법, 가려움증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요법 등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매우 가려운 질환인데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환경과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므로 실내 온도는 20~22℃, 습도는 55~65%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것이 적당하지만 피부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앉은 급성기에는 미지근한 물을 욕조에 받아 목욕하는 것이 좋다.

목욕 시간은 10~15분 정도나 손끝이 조금씩 핏물만 나올 때까지 한다. 가꿈 목욕이나 때 타월을 사용하지 않고 약산성 보습 비누를 가능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한다. 목에 묻은 물기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살살 짤아내는 요령으로 닦아내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습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목욕 후 국소 치료제는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사용해야 하는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받은 치료약을 병이 있는 부위와 정도에 따라 올바르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을 최소 6개월 이상 먹이고, 이유식도 가능한 늦게 생후 6개월 정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조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동료 비방하는 악성루머...후진적 태행 '섞쓸'

여동생이 얼마 전 회사에서 황당한 소문이 시달렸다며 고충을 털어냈다. 그 소문은 즉 회사에서는 요즘 구조조정을 하고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면서 일부 부서는 통합도 했는데 거기에 맞춰 인사를 실시한 결과 동생이 승진을 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승진한 사람 중에 동생이 유일한 여성인데도 실근이 없이 소문의 빌미가 된 것 같았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약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이런 근거 없는 악성 소문이 시달리는 경우가 적잖다.

그 때문에 동생은 얼마 전부터 퇴근 후에는 직원을 상하를 불문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오기 바쁘다. 특히나 술자리는 최대한 자제하며 사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정보도 중요하고, 상하 두루 대인관계도 아주 중시하는 게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특성이다.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첫걸음이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일이며 그런 자리가 곧 식사나 가벼운 술자리에 대고 그걸 전부 피해야 하나니 동생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우리의 조직문화, 기업문화가 이제는 누구를 합당하거나 괜히 매도하며 질시해서 악성 소문을 퍼뜨리고 매상시키는 그런 후진적 행태가 쓸쓸하기만 하다. <이준호·광주시 북구 운정동>

<p>光 日 報</p> <p>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岳 편집국장 曹慶完</p> <p>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p> <p>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p> <p>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처 부 2200-634 여론채부 2200-679 정 치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p>	<p>The Kwangju Ilbo</p> <p>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4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